



Contents

- 1 6호를 발간하며
- 2 아마자와 산조(山澤三造)의 《조선사진전람회》 심사평에 대하여 _ 최봉림
- 8 《조선사진전람회》 전체 입상자 중 한국인 비율
- 9 《조선사진전람회》 한국인 입상자 이력
- 20 한국사진사 연표: 1929~1945
- 24 한국사진사 참고자료: 전조선사진연맹 · 《조선사진전람회》 관련 참고 문헌 목록

발행 한국사진문화연구소
 주소 138-724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45 한미타워 19층
 전화 02-418-1315
 팩스 02-418-1316
 웹사이트 photomuseum.or.kr
 이메일 research@photomuseum.or.kr

발행인 송영숙
 편집인 최봉림
 편집위원 유지의, 김소희
 디자인 한스그래픽
 김진득
 출력·인쇄 그라픽코리아
 발행일 2013. 12. 27

Copyright © 2013

이 책에 실린 글, 사진, 그림 등 모든 기사의 저작권은 한국사진문화연구소와 저자에게 있으며, 연구소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사진문화연구소는 한국사진사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연구를 목적으로 2009년 1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사진+문화』는 한국사진문화연구소에서 연 2회 발행하는 기관지로 한국사진사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연구소의 프로젝트를 소개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6호를 발간하며

한국사진문화연구소는 2010년 2월, 기관지 『사진+문화』를 창간하면서 그 해 사업목표로 “『경성일보』가 1934년에서 1943년까지 매년 열었던 공모전을 통해 한국 예술사진의 기원과 제 문제 그리고 예술 사진과 지배정책의 관계를 모색하는” 자료집을 출간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2011년 일본어 역자를 구해 번역을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번역자는 현대 일어에만 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업은 2012년으로 미뤄졌고, 연구소는 새 번역자로 일본에 유학 중인 박완 씨를 섭외하게 되었습니다. 번역은 순조롭게 시작되었지만, 《조선사진전람회》의 관련 자료를 보완, 수집하여야 할 연구소에 우선 사업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바로 2012년 11월 16일부터 2013년 1월 13일까지 덕수궁미술관에 열렸던 전시회, 《대한제국 황실의 초상: 1880~1989》의 기획과 진행이었습니다. 전시규모에 비해 준비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또다시 《조선사진전람회》 자료집의 진행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 늦봄부터 연구소는 박완 씨와 번역 작업을 재개했고, 다시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경성일보』를 뒤적이며 자료를 보완해 나갔습니다. 박완 씨의 정성 어린 번역 덕분에 10월이 되자 《조선사진전람회》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사진의 모습은 어설프고, 일본의 군국주의는 무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제6호 『사진+문화』는 《조선사진전람회》 관련 『경성일보』 자료집이 보여주는 한국 사진공모전의 아쉽고 아쉬운 기원을 보다 세심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야마자와 산조(山澤三造)의 《조선사진전람회》 심사평에 대하여」는 공모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심사위원의 글을 통해 일제강점기를 지배한 사진비평의 시선을 분석하는 글입니다. 그의 사진적 관점과 내용을 한국 초기 사진담론의 기원에 위치시킨 후, 해방 이후에 전개된 한국 사진 심사평과 비평의 향방을 가늠해보려는 고찰입니다. 너무나 단조롭고 빈약한 야마자와 산조의 글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일천한 한국 초기 사진문화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는 가정 속에서 쓰인 글입니다.

야마자와 산조가 상임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조선사진전람회》를 통해 한국 사진가 제1세대의 대부분이 ‘작가’로서 데뷔하게 됩니다. 한국 예술사진의 뿌리가 《조선사진전람회》와 맞닿아 있으며, 직, 간접적으로 야마자와 산조와 관련을 맺는 셈입니다. 그들의 사진적 이력을 일제강점기부터 정리합니다. 한국 사진문화연구소는 치욕 없는 영광의 역사는 없다는 믿음 하에 그들의 사진 약력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사진전람회》의 전 개최 시기를 포괄하는 1929년에서 1945년 해방에 이르기까지의 한국사진연표를 게재합니다. 한국 사진 역사 연구의 필수 자료인 연표 작성에 한국사진문화연구소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증적 고증에 바탕을 둔 연표작성에 정성을 기울여, 멀지 않은 장래에 믿음직스러운 한국 사진사 연표를 발표하겠습니다.

2013년 12월
한국사진문화연구소





야마자와 산조(山澤三造)의 《조선사진전람회》 심사평에 대하여



야마자와 산조(山澤三造)

조선총독부 기관지 『경성일보』와 일제강점기 조선 최대 사진조직인 전조선사진연맹(朝鮮寫眞聯盟)이 공동주최하고, 한국 사진공모전의 원형이 된 《조선사진전람회》¹⁾의 심사위원 중 눈에 띄는 인물이 있다. 그는 1934년부터 1943년까지 총 10회에 걸쳐 개최된 《조선사진전람회》의 심사위원으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유일한 사람이며, 한 해도 거름 없이 매년 심사평을 쓴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조선사진전람회》의 3~5명으로 이뤄진 심사위원 명단 계재순위에서 언제나 첫머리를 차지한 인물이었다. 따라서 《조선사진전람회》의 심사에서 위원장 제도가 있었다면, 그는 그 지위를 넉넉히 가졌을 인물이었다. 그의 이름은 야마자와 산조다. 그의 《조선사진전람회》 심사평을 읽어보는 것은 한편으로는 일제 강점기의 조선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진살롱의 평가기준과 미학적 논거를 밝히는 일이 될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사진전람회》의 여러 조선인 입상자들이 해방 이후에는 한국 사진계를 주도하는 사진단체장, 사진공모전의 심사위원들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그들이 작가로서 데뷔한 공모전의 상존 심사위원의 심사평을 분석하는 것은 한국에서의 초기 사진비평의 원시적 형태를 드러내는 일이기도 할 것이다.

야마자와 산조의 조선에서 확인된 이력은 다음과 같다.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직원록』을 보면 그는 1923년에서 1938년까지 총독부 식산국 지질조사소 기수(技手)였으며, 전조선사진연맹 소속 단체 목록을 보면 1935년 조선사우회로 시작하여 1936년 조선사진회로 개칭되는 단체의 대표자였다. 야마자와 산조에 대한 박필호(朴弼浩, 1903~1981)의 기억을 인용하면, “1927년 일본인 야마자와 산조라는 사람이 주동이 되어 발족한 (조선사진회) 회원들이 모두 일본인들인데 유감스럽게도 조선인으로 유일하게 저가 끼었습니다. (...) 일본인들은 전 일본 사진그룹 중 규모가 가장 큰 관서사진연맹 지부를 경성에 개설하고 조선사진회와 사진전 개최, 촬영대회 개최 등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경쟁마저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2년 뒤인 1934년부터 두 단체를 통합, 『경성일보』 내 전조선사진연맹을 발족시켰고 역시 야마자와 산조가 회장을 맡아보았죠.”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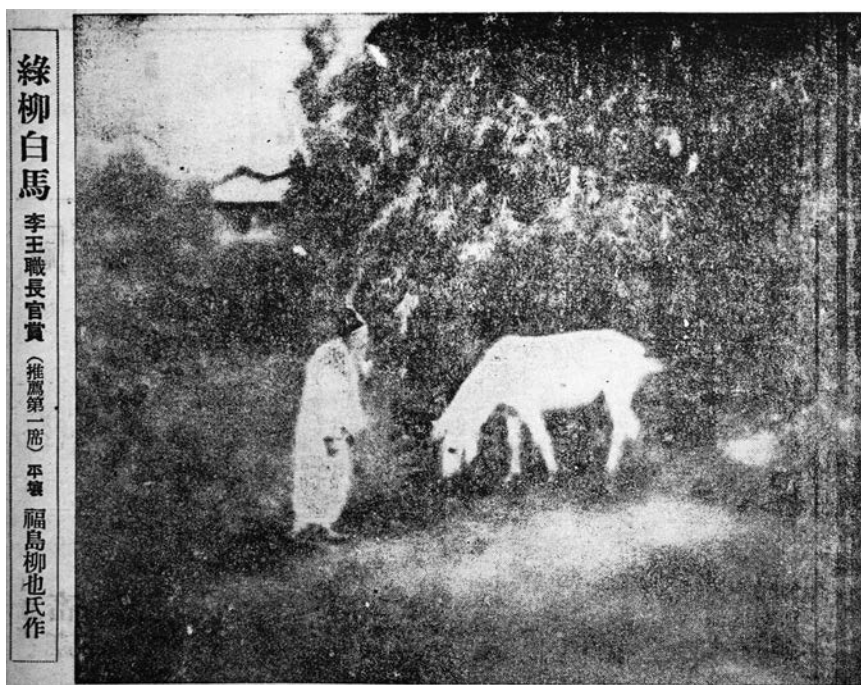
기억의 오류를 지적하면, 전조선사진연맹은 두 단체만의 통합체가 아니라 그야말로 ‘전조선’의 사진단체를 규합하는 연맹체였고, 야마자와 산조는 ‘회장’이 아니라 네 명의 이사 중 한 명이였다.³⁾ 그리고 그는 경성전기주식회사가 1937년에 발행한 『풍납리토성』과 “조선신궁 진좌(鎭座) 1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행해진 연지(年誌) 편찬사업의 “사진 삽입사무”⁴⁾의 담당자였다. 따라서 야마자와 산조는 조선 내 공적인 사진 업무의 대표자였을 뿐만 아니라, 재조선 일본인 아마추어 사진가들의 유력한 지도자였음이 틀림없다.

- 1) 1934년 10월에 열린 제1회 때의 명칭은 《전조선사진전람회》, 1935년 10월에 열린 제2회부터 1939년 제6회까지는 《조선사진살롱》, 1940년 11월에 열린 제7회부터는 《조선사진전람회》로 불렸다.
- 2) 『풍류백년, 사라져가는 우리의 풍물, 그 맛과미를 찾는다』, 『일간스포츠』, 1977. 9. 2. 띄어쓰기, 맞춤법 교정과 괄호 속 글자는 필자가 행한 것임.
- 3) “(...) 소재 각 단체 대표자 20여 명을 초대하여 연맹 규약을 중심으로 협의하여 규약을 결정하여, 이에 전조선사진연맹 결성의 기초를 만들었다. (...) 전조선사진연맹규약 (...) 이사는 경성일보사 사장이 취임한다. (...) 또한 임원은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이사 山澤三造 (...) 『경성일보』, 1934. 8. 7. 석간 3면.
- 4)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관계자료집 VI』, 도서출판 선인, 2008, 604~606쪽 참조.





야마자와 산조의 심사평은 내용과 테크닉의 어설픈 이분법에 의거했다. 그의 용어를 빌리면 ‘내용미’는 “작가가 노린 아이디어, 그 효과 등 그림으로서의 가치”를 창출하는 미학적 요소이며, 테크닉은 톤과 디테일의 재현에 관련된 표현의 기술과 관련된다. 그러니까 ‘미술사진’ 즉 예술사진을 구성하는 요소는 내용과 재현의 테크닉인 바, 전자는 무형의 지적, 감성적 성분을 가리키며, 후자는 전자에 의거해 기술적으로 드러난 물성을 지칭한다. 그의 말을 빌리면 ‘손재주’다. 그가 보기에 인물의 표정, “풍경에서의 대기의 표징”을 감지하고 파악하는 능력은 전자에서 비롯되며, “수정이 고르지 않다든가 혹은 광휘부나 암부의 디테일이 뭉개져 있다든가 하는 것은” 테크닉의 결핍에서 기인한다. 그런데 그가 보기에 사진의 예술성을 결정짓는 주요소는 ‘작가의 의도’와 관련된 내용적 측면이지, 결코 기술적 양상이 아니다. 사진 프로세스와 관련된 테크닉은 부수적일 뿐이다.⁵⁾



福島柳也, 《녹유백마(綠柳白馬)》, 1934년.
《제1회 전조선사진전람회》 추천 제1석

사실 야마자와 산조의 내용/테크닉의 이분법은 정신과 물질, 의도와 기교의 상호관계성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이 둘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 이항대립적 사고의 산물에 불과하다. 그리고 전자에 가치를 부여하는 일반의 예술이론을 좇아 그도 정신과 의도, 즉 내용에 가치 평가의 역점을 두었다. 그에게 있어서 역작, 훌륭한 작품은 “작가의 의도를 엿보기에 충분하고”, 작가의 “두뇌의 예리함을 말해주는” 작품이라고 속 편히 정의해버렸고, 당연히 태작은 그의 글에서 되풀이되는 정신적이며 지적 항목인 ‘의도’, ‘두뇌의 예리함’이 결여된 작품이었다. 이렇듯 내용에 중점을 두고, 테크닉을 부수적으로 바라보는 비평적 안목은 추천과 특

5) “물론 미술사진인 이상 추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사진 프로세스를 완전히 등한시할 수는 없지만, 다만 이러한 것들은 부차적으로 다루었다.” 야마자와 산조, 「전조선사진연맹 창립전을 돌아보며」, 『경성일보』, 1934. 10. 30. 석간 3면.





선, 입선과 낙선을 가르는 기준을 손쉽게 마련할 수 있었다. 제1회 《조선사진전람회》의 리뷰에서 야마자와 산조가 밝힌 대로 “가능한 한 자신의 호오(好惡)라는 감정에 얽매이지 않은 채 공평무사하고 작가를 존중하는 태도로 선정에” 임한다면 내용의 유무, 더 나아가 테크닉의 유무를 살펴보면 평가는 끝나는 것이다. 당연히 으뜸은 우수한 내용과 우수한 테크닉, 그다음은 우수한 내용과 아쉬운 테크닉, 마지막은 아쉬운 내용과 우수한 테크닉 혹은 ‘단순한 손재주’ 일 것이다. 낙선작 혹은 태작은 말할 것도 없이 내용의 부족, 테크닉의 결여일 것이다. 1937년 11월 17일의 심사평을 인용해 보자.

“그럭저럭 구도가 잡혀 있고 마무리가 깨끗한 것, 단지 그것뿐으로 내용이 부족한 것도 적지 않았다. (...) 단순한 손재주로 완성된 그림은 금세 싫증이 난다. 선정된 추천 1석은 다소 기품이 결여된 아쉬움이 없지는 않지만, 안정감이 있으면서도 향토색을 풍부하게 드러낸 최고의 작품이다. 마무리도 실로 훌륭하다. 추천 2석 〈할미꽃〉은 마무리가 다소 부족하기는 하지만 대담한 두 개의 곡선에 의해 화면 전체를 기분 좋게 긴장시키며 그 의도가 구석구석까지 엿보여, 작가의 두뇌의 예리함을 말해주는 이색을 띤 우수작이다.”

《조선사진전람회》는 자유주제, 소재에 의한 공모전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참가자에게 응모작의 내용-의도를 전적으로 내맡겼던 것은 아니다. 군국 제국주의 시대를 사는 야마자와 산조를 위시한 심사위원들은 예술성의 주요소인 내용의 범주를 명시했다. 초기 《조선사진전람회》의 그것은 다름 아닌 ‘향토색(local color)’이었다. 1922년에 창설된 《조선미술전람회》의 내용 평가의 준거로 작용했던 향토색은 이를 모방한 《조선사진전람회》에도 그대로 적용됐다.⁶⁾ 1934년, 그러니까 첫해의 심사평에서 야마자와 산조는 이를 일종의 선언처럼 기술했다.

“그러나 단독심사든 공동심사든 심사원으로서의 책임은 대단히 중하다. 개개의 입선 작품에 대하여 충분히 그 이유를 설명할 확신을 지녀야 한다. 대체로 인물상에서는 우선 표정, 풍경에서는 대기의 표정 등 그 심오한 가치에 무게를 두었고, 더 나아가 향토색, 즉 거짓 없는 조선의 모습을 추구해 마지않았다. 조선 고유의 생활의 반영을 요구하였다.”⁷⁾

한마디로 말해 상존 심사위원, 야마자와 산조가 선호하는 예술사진은 향토색에 물든 인물, 풍경 사진이며, 이것이 ‘거짓 없는 조선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조선사진전람회》의 수상작들의 주요 내용은 향토색에서 ‘비상시국의 표현’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응모 사진가의 ‘아이디어’, ‘의도’를 ‘비상시국’에 초점을 맞추도록 요구한다. 사진공모전의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인 내용이 근대적이며 목가적인 ‘조선색’에서 “대륙 경영의 병참기지”로 변모하는 근대적이며 역동적인 조선으로 옮겨간다. 야마자와 산조는 전쟁 상황에 부응하는, 제국주의에 봉사하는 ‘내용미’를 역설하는 것이다. 향토

6) 《조선미술전람회》의 ‘향토색’을 이국취향, 특히 오리엔탈리즘과 식민통치기술에 연결시키는 해석은 이제 일반화되었다. 다시 말해 미학적 용어로 정의된 ‘향토색’이 피지배국의 관광, 민속학, 인류학 그리고 타자화 등과 ‘부정적’ 관련을 맺는다는 주장은 논제의 정설로 자리 잡는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토색’을 식민지를 ‘착취하는’ 이데올로기로만 단순화하는 것은 웬지 역사적 피해의식의 산물처럼 느껴진다. 미학 개념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처럼 국가권력이 체계적으로, 총체적으로 조직하고 강제하지 않는 한, 생각만큼 선택적으로 타자에게만 적용될 수 없는 이데올로기다. 더욱이 ‘향토색’처럼 부정적/긍정적 가치가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하기 힘들면 더욱 더 그렇다. ‘향토색’은 전근대와 열등함의 표상일 수도 있지만, 유기적 공동체 의식, 단순한 삶의 평화를 상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서구의 근대 예술철학은 일반적으로 ‘보다 나은 미래’보다는 ‘잃어버린 낙원’에 가치를 부여했다. 오히려 그것이 역사적 정황이 다른 주변에 이입될 때 생기는 착오, 역전된 가치를 향토색의 본래 생성 문맥과 더불어 살펴봐야 한다.

7) 야마자와 산조, 위의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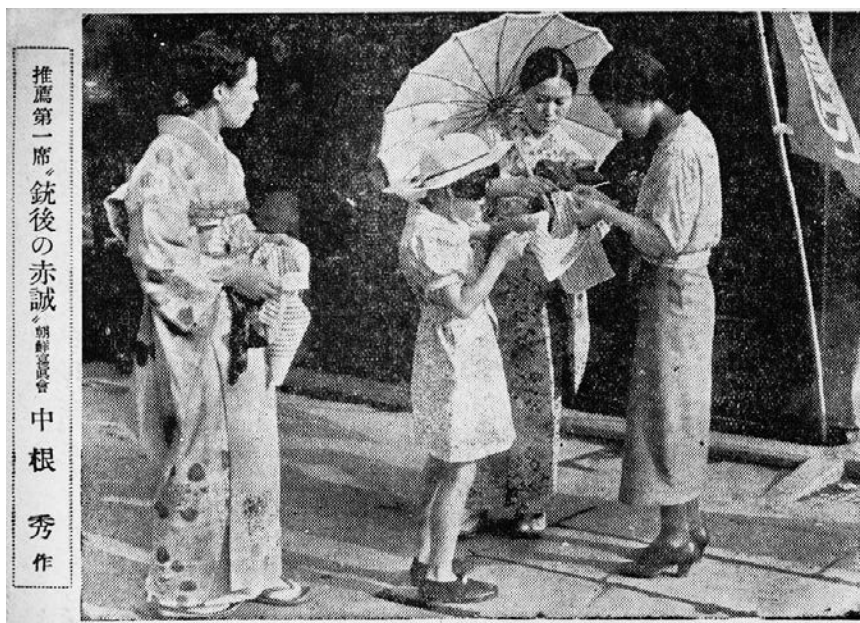


색 짙은 사진에서 “시국색을 강조한 작품”으로 ‘내용미’ 평가의 기준이 옮겨가는 것은 심사 위원에게 아무런 문제, 갈등을 야기하지 않았다. 야마자와 산조가 보기에 둘 모두는 어차피 시대가 요구하는 내용이었고, 예술은 현실에 순응하고 세계를 미화하는 지적, 정신적 활동이기 때문이었다.

오늘날 보기에 사진의 내용, 그것의 원천으로서의 의도와 아이디어를 작품 평가의 주안점으로 삼았던 비평의 시선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지배 이데올로기에 안주하면, 그의 말대로 ‘공평무사’ 하기는커녕 얼마나 쉽게 정치적으로 변모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사진작품의 내용을 구성하는 주제와 소재를 순응주의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아이디어와 의도를 작품 평가의 주요 사항으로 삼는 야마자와 산조의 심사평은 예술과 이데올로기, 작가와 사회가 서로 대립하고 불화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었다. 시국에 봉사하는 ‘미술사진’을 촉구하는 심사총평의 한 문단을 인용해보자.

“생활을 벗어난 작품은 생명이 없는 것이다. 예술은 우리 생활의 연장이다. 바야흐로 거국적으로 비상시 극복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시국의 표현은 단지 제1선에 있는 황군의 씩씩하고 용감한 모습, 혹은 그것과 직접 관련된 것뿐인 사진일 수는 없다. 농업에서 공업조선의 건설로, 이것은 대륙 경영의 병참기지라는 중책에서도 조선이 지니는 중대한 사명임을 인식해야 한다.”⁸⁾

8) 야마자와 산조, 「사진 예술도 생활의 연장」, 『경성일보』, 1938. 11. 10. 조간 3면.



中根秀, 《후방의 정성(銃後の赤誠)》, 1938년, 《제5회 조선사진살롱》 추천 제1석





여기에서 말하는 ‘생활’은 한국전쟁 종전 후, 임응식이 주창한 ‘생활주의 사진’을 연상시키지만, 그 성격은 판이하다. 임응식의 ‘생활’은 순응주의적이라기보다는 탈정치적이고, 현실의 미화라기보다는 객관적 재현을 목표로 삼지만, 총독부 직원의 ‘생활’은 정치적이며, 유포주의적이다. 전자의 ‘생활’ 개념은 문예사조로서의 리얼리즘에 맞닿아 있었지만, 일본인 심사위원의 ‘생활’은 프로파간다와 손을 잡고 있었다. 그리하여 1938년 이후 그의 심사평은, 물론 그 이전에도 그러했지만, 종종 ‘공평무사한’ 심사평의 자리를 빌려 일본 제국주의에 아부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전시체제에 봉사하지 않는 일부 사진을 “헛되이 자기 도취에 빠진 극단적인 것 또는 불건전한 작품”⁹⁾으로 탄핵하기에 이른다.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 예술의 상투적 관념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시류에 영합하고 지배 이데올로기에 편입된 아마자와 산조의 사진적 시선은 훌륭한 사진을 순수한 심미안, 정신의 산물로 정의하는 모순을 범하기도 했다. 통속적 이상주의 미학에 기대어, 사진이 사진기에 종속된 기계적 예술에 머물지 않고, 순수미술의 영역에 진입하기를 기대하기도 했다. 사진기와 렌즈의 도구성을 강조하면서, 사진을 정신적 ‘눈’의 산물로 규정하고자 했다.

“참으로 박력을 지니는 예술품은 사진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서 오는 것이다. 그것은 자연을 가까이하고 살아 있는 것을 응시한 눈으로 그 참됨을 찍은 것으로, 차가운 렌즈가 찍어준 것으로는 안 된다.”¹⁰⁾

9) 아마자와 산조, 「사진계와 시국」, 『경성일보』, 1941. 11. 16. 석간 3면.

10) 아마자와 산조, 「사진 예술도 생활의 연장」

11) 아마자와 산조, 「전조선사진연맹 창립전을 돌아보며」를 참조할 것.

12) “어떻게 빛의 미를 포착할 것인가, 어떻게 순간적인 기분을 재현할 것인가에 부심하고 있는 것 같다. 회화의 모방 시대를 청산하고 사진기를 구사하여 자연을 본다는 신홍 분위기도 더해져 왔다.” 아마자와 산조, 「심사잡감」, 『경성일보』, 1935. 10. 30. 조간 7면: “북으로 그려낼 수 없는 세계를, 사진가에게만 허락된 천혜의 미를 느끼는 경우가 있다.” 아마자와 산조, 「비상시국과 전환의 절호의 기회」, 『경성일보』, 1938. 4. 30. 석간 6면.

13) “산악의 묘사는 단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어야 한다. 작가의 의도 또한 이 산의 신비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 어쨌든 우리들은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가까이하며 그 영감에 접촉할 일이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사람도 도야되고 좋은 사진도 만들 수 있다.” 아마자와 산조, 「의도한 바를 이룬 산의 신비」, 『경성일보』, 1940. 11. 19. 조간 3면.

모순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한편으로는 사진을 ‘그림’이라 말하고, 예술사진을 ‘미술사진’이라고 말하면서 회화를 예술사진의 전범으로 삼았던 회화주의(Pictorialism)의 태도를 보이기도 했고,¹¹⁾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진의 독자성, 회화와 구별되는 사진의 특징을 스치듯 이야기하며 모더니스트적인 사진의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¹²⁾ 사실,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성일보』는 1930년 이후 지속적으로, 사진의 고유한 특성을 구현하려는 서구의 모더니즘 계열의 사진을 회화적 효과를 추구하는 회화주의 사진과 뒤섞어 게재하고 있었다. 당연히 회화주의와 모더니즘 사진의 형식적 차이와 미학적 목표의 대립을 전혀 가늠하지 못한 채 말이다. 아마자와 산조 역시 회화주의와 모더니즘 사진의 대립적 특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사진예술의 미학적 승인, 사회적 인정을 때로는 회화주의자의 단어로, 때로는 모더니스트의 어투로 발언했다.

아마자와 산조의 순응주의적 내용 중심주의와 상투적인 순수미학, 여기에 도덕주의가 결합하면, 그의 심사평은 최악을 향한다. 그에게 있어서 참다운 것은 아름다우며, 아름다운 것은 선하다. 그의 1940년 이후,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 전후의 심사평은 이제 작품의 ‘공평무사한’ 평가와 해설이기를 그치고, 도덕 교과서에 실린 예술에 관한 문단과 구분되지 않는다.¹³⁾ 더욱이 제국주의에 대한 충성심이 더해지면, 그것은 정치적 훈시 그 자체가 된다.

“대정에 익찬하여 대동아 건설에 협력하는 이 아름다운 애정을 가지고 대상을 포착하고자





하는 마음속에 참된 일본 정신이 나타나고 참된 우수작이 태어나는 것이라 믿는다. 기계에 내맡기는 일은 안 된다. 기계가 찍어준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좋은 작품도 바랄 수 없다. 요컨대 모든 방향의 교양을 높이는 것에 있다. 교양을 통하여 만들어내는 것에 의해 정책에 부응하는 흥아(興亞) 정신이 드러나고 시대가 바라는 우수작이 태어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⁴⁾

야마자와 산조에게 있어서 사진적 형식, 다시 말해 대상과 사진적 재현의 간극, 작가와 대상과의 관계 등에 관한 질문은 언제나 논의였다. 1936년을 전후로 소형카메라에 의한 출판작 제작이 일반화되었을 때조차 사진기술과 재현의 변모를 숙고할 역량도 갖추지 못했다. 그저 일천한 모더니스트의 사고를, 상투적인 이상주의 미학을, 때때로 회화주의가 애호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표출하였을 뿐이었다.

한국의 사진비평은 아쉽게도 야마자와 산조의 위와 같은 심사평에서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작품 평가의 기준은 단순한 내용 중심주의를 지향했고, 그 내용은 시류에 영합하는 것이었다. 사진예술을 진흥시키려는 바람은 있었지만, 공모전의 권위를 확장하려는 의지 외에는 다른 대안을 모색하지 않았다. 제국주의의 질곡은 해방과 더불어 사라졌지만, 야마자와 산조로 대표되는 심사평-비평의 후진성은 상당 기간 한국 사진의 공모전, 단체전 주변을 맴돌았던 것이다.

최봉림

한국사진문화연구소 소장

14) 야마자와 산조, 「사진계와 시국」





《조선사진전람회》 년도별 한국인 입상자·입상작 통계

년도	전시회명	전시 기간	총 응모작 수	총 입상자 수	한국인 입상자 수 (비율)	총 입상작 수	한국인 입상작 수 (비율)	한국인 입상자명
1934	제1회 전조선사진전람회	10.20~10.24	500여 점	68	5 (7.35%)	107	9 (8.41%)	김용운, 김정래, 서순삼, 이태경, 현일영
1935	제2회 조선사진살롱	11.1~11.5	600여 점	68	2 (2.94%)	107	3 (2.8%)	박필호, 이태경
1936	제3회 조선사진살롱	11.1~11.5	1,200여 점	69	6 (8.69%)	107	10 (3.34%)	서순삼, 안정차, 오병도, 임순태, 장인봉, 정병현
1937	제4회 조선사진살롱	11.19~11.23	미기재	91	10 (10.98%)	166	13 (7.83%)	김원선, 박유서, 박필호, 서병직, 이규완, 임응식, 장병진, 정운상, 최계복, 홍종오
1938	제5회 조선사진살롱	11.10~11.14	832점	68	9 (13.23%)	107	13 (12.14%)	김순영, 김병수, 박삼식, 오병도, 이형록, 임응식, 장병진, 조영일, 최계복
1939	제6회 조선사진살롱	11.15~11.19	865점	64	10 (15.62%)	104	19 (18.09%)	김병수, 서병직, 이겸수, 이형록, 장병진, 장석현, 정부송, 차도순, 최계복, 최선동
1940	제7회 조선사진전람회	11.20~11.24	711점	68	6 (8.82%)	107	7 (6.93%)	김주성, 이겸수, 이형록, 장석현, 조상규, 차도순
1941	제8회 조선사진전람회	11.19~11.23	537점	61	3 (4.91%)	111	8 (7.2%)	박조정, 백운경, 정도선
1942	제9회 조선사진전람회	11.20~11.25	583점	58	5 (8.62%)	109	16 (15.09%)	서형섭, 이덕기, 정도선, 정용복, 최봉도
1943	제10회 조선사진전람회	11.20~11.26	475점	53	5 (9.43%)	104	16 (15.38%)	박득석, 선죽현, 이경래, 정도선, 최봉희





《조선사진전람회》 한국인 입상자 이력

김병수(金炳洙)

- 1937년 <압록강(鴨綠江), <압록강 배경(鴨綠江背景)>, 《제1회 남량풍경사진현상모집》 가작. (『조선일보』, 1937. 7. 10)
- 1938년 <투망(投網)>, 《제2회 남량풍경사진현상모집》 2등. (『조선일보』, 1938. 6. 30)
- <수변 풍경(水邊風景)>, 《제2회 남량풍경사진현상모집》 가작. (『조선일보』, 1938. 6. 30)
- <반짝이는 역새(光る芒)>, <모래언덕을 가다(砂丘を行く)>, 《제5회 조선사진살롱》 입선. (『경성일보』, 1938. 11. 8. 조각 7면)
- 1939년 <가을 밤(秋の夜)> 외 2점, 《제6회 조선사진살롱》 입선. (『경성일보』, 1939. 11. 14. 조각 3면)
- 1971년 『공간』 주최 《현대와 전통》 참여. (임응식, 『내가 걸어온 한국사단: 임응식 회고록』, 서울: 눈빛, 1999, 210쪽)

김순영(金舜泳)

- 1938년 <두개의 토관(二つの土管)>, 《제5회 조선사진살롱》 입선. (『경성일보』, 1938. 11. 8. 조각 7면)
- <하동군상(河童群像)>, 《제2회 남량풍경사진현상모집》 3등, <등대 있는 여름 풍경(燈台있는여름風景)>, 《제2회 남량풍경사진현상모집》 가작. (『조선일보』, 1938. 7. 15)

김용운(金用雲)

- 1934년 <항아리(壺)>, 《제1회 전조선사진전람회》 입선. (『경성일보』, 1934. 10. 19. 석간 2면)

김원선(金元善)

진남포골드카메라회

- 1937년 <초겨울의 따뜻한 날씨(小春日和)>, 《제4회 조선사진살롱》 입선. (『경성일보』, 1937. 11. 17. 석간 4면)
- 1938년 <진남포 등대 부근(鎭南浦 燈臺 附近)>, 『경성일보』 현상 공모 3등. (최인진, 『한국사진사: 1631~1945』, 서울: 눈빛, 2000, 484쪽)

김정래(金貞來)

조선신문사 기자 (임응식, 1999, 191쪽)
예술사진동인회 (임응식, 1999, 72쪽)

- 1933년 《현상사진모집》(『경성일보』 · 『매일신보』 공동 주최) 1등, 가작 1점. (『매일신보』, 1933. 8. 20)
- 1934년 <무르익는 가을(稔る秋)>, <평화로운 언덕(平和な丘)>, 《제1회 전조선사진전람회》 입선. (『경성일보』, 1934. 10. 19. 석간 2면)
- 1937년 <한강철교 부근(漢江鐵橋附近)>, 《제1회 남량풍경사진현상모집》 1등. (『조선일보』, 1937. 7. 10)
- <세검정 부근(洗劍亭附近)>, 《제1회 남량풍경사진현상모집》 가작. (『조선일보』, 1937. 7. 10)
- 경성아마추어카메라구락부 창립회원. (최인진, 2000, 261쪽)
- 1939년 <5월의 경마>, 『일본보도사진연감』(일본 동맹통신사(同盟通信社) 발행) 수록. (최인진, 2000, 485쪽)
- 1946년 《해방기념사진전》 심사위원. (한국사진작가협회 편, 『한국사협 50년사』, 서울: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출판부, 2013, 97쪽)
- 1949년 한국 신문사진가협회 간사. (예술의 전당 편, 『한국현대사진의 흐름: 1945~1994』, 서울: 타임 스페이스, 1994, 23쪽)
- 《제1회 예술사진동인전》(대원화랑) 참여. (〃)
- 1953년 『동방사진뉴스』(동방사진문화사 발행) 주간. (〃)





김주성(金周聖)

남조선사진동맹(구 조선사진동맹) 재정부장. (이경민, 『해방공간과 한국 전쟁의 남북한 사진계의 조직(2)』, 『사진+문화』, 한국사진문화연구소, vol.2, 12쪽)

1940년 《제7회 조선사진전람회》 1점 입선. (『경성일보』, 1940. 11. 19. 조간 3면)

박득석(朴得錫)

1943년 《제10회 조선사진전람회》 1점 입선. (『경성일보』, 1943. 11. 19. 조간 3면)

박삼식(朴三植)

대구사우회 (임응식, 1999, 72쪽)

1938년 〈늦가을(晩秋)〉, 《제5회 조선사진살롱》 입선. (『경성일보』, 1938. 11. 8. 조간 7면)

박유서(朴有緒)

1937년 〈장대높이뛰기(棒高跳)〉, 《제4회 조선사진살롱》 가작. (『경성일보』, 1937. 11. 17. 석간 4면)

박조정(朴照晷)

1941년 〈농가의 뒤편(農家の裏)〉, 《제8회 조선사진전람회》 입선. (『경성일보』, 1941. 11. 17. 조간 3면)

박필호(朴弼浩, 1903~1981)

1924년 휘문고등학교 졸업.

1925년 연우(研友)사진관(경성 모동) 개업.

1926년 경성사진사협회 창립 부회장. (박평중, 『한국사진의 선구자들』, 서울: 눈빛, 2007, 202쪽)

1927년 YMCA 사진과 강의.

1929년 〈오후〉, 《예술사진공모전》(경성일보사 주최, 조선박람회 기념전) 특선. (박평중, 2007, 44쪽)

1930년 경성사진학강습원 설립 및 사진 강의. (박필호, 『박필호 (1903-1981): 사진을 말한다』, 시각, 2003, 323쪽)

『조광』(조선일보사 발행) 사진 담당. (박평중, 2007, 202쪽)

1932년 조선사진회 창립. (박필호, 2003, 323쪽)

경성인상사진연구회 창립. (박평중, 2007, 202쪽)

1933년 〈초하〉, 《현상사진모집》(『경성일보』 · 『매일신보』 공동 주최) 가작 입선. (『매일신보』, 1933. 8. 20)

1935년 〈초상(肖像)〉, 《제2회 조선사진살롱》 입선. (『경성일보』, 1935. 10. 30 조간 7면)

1937년 경성아마추어카메라구락부 창립회원. (최인진, 2000, 261쪽)
〈대화(語らひ)〉, 《제4회 조선사진살롱》 가작. (『경성일보』, 1937. 11. 17. 석간 4면)

1937년~1940년 제1회~제4회 《남량풍경사진현상모집》 심사위원 역임. (이경민 · 사진아카이브연구소 편, 『카메라당과 예술사진 시대』, 서울: 아카이브북스, 2010, 170~249쪽)

1940년 법인 사진상업조합 창립. (박필호, 2003, 323쪽)

1946년 서울사진가협회 창립 회장. (이경민, 『박필호를 말한다』, 『현일영 · 서순삼 · 박필호 탄생 100년 기념 학술대회』, 2003, 50쪽)
《해방기념사진전》 심사위원 (한국사진작가협회 편, 2013, 97쪽)

1949년 《제1회 예술사진동인전》(대원화랑) (예술의 전당 편, 1994, 23쪽)

1952년 한국사진작가협회 고문. (박필호, 2003, 323쪽)

1955년 대한사진가연합회 고문. (〃)

1957년 한국광화회 고문. (〃)

1962년 한국사진협회 고문. (〃)

1965년 서라벌예술대학 사진과 과장. (박평중, 2007, 202쪽)
국전 사진부문 초대작가, 심사위원 역임.





1968년 사진문화상 교육상 수상. (이경민, 2003, 50쪽)

1980년 현대사진문화상 수상. (〃)

1981년 별세.

백운경(白雲慶)

1941년 <저녁놀(殘照)>, 《제8회 조선사진전람회》 입선. (『경성일보』, 1941. 11. 17. 조각 3면)

서병직(徐丙直)

1937년 <그물(網)>, <미소(微笑)>, 《제4회 조선사진살롱》 입선, <금붕어 가게의 한구석(金魚屋の一隅)>, 《제4회 조선사진살롱》 가작. (『경성일보』, 1937. 11. 17. 석간 4면)

1939년 <옥외 공장(屋外工場)>, <아침의 바닷가(朝の濱邊)> 외 3점, 《제6회 조선사진살롱》 입선. (『경성일보』, 1939. 11. 14. 조각 3면)

서순삼(雪川 徐淳三, 1903~1973)

일본 세소쿠(正則)중학교 졸업. (한국사진사연구소, 『한국사진역사전』, 서울: 연우, 1998, 308쪽)

1923년 코니시로쿠(小西六) 사진전문학교 중퇴. (진동선, 『한국사진의 개척자, 설친 서순삼의 사진세계』, 『현일영·서순삼·박필호 탄생 100년 기념 학술대회』, 2003, 26쪽)

1925년 평양 종로(鍾路) '삼정사진관(三正寫眞館)' 개업. (최인진, 2000, 473쪽)

1928년 평양사진조합 창립 간사. (진동선, 2003, 26쪽) 『동아일보』, 『조선일보』 촉탁사진가 활동.

1931년 조선일보사 평양 지국 사진반과 합동전, 《제1회 예술사진전람회》(조선일보사 평양지 국 2층) (『조선일보』, 1931. 10. 22. 석간 6면) 《약진조선사진전》(『조선일보』 주최) 1점 당선. (진동선,

2003, 26쪽)

1932년 경성인상사진연구회 창립 제1회 회원전(대련상회 사진재료점 2층). (최인진, 2000, 478쪽)

1934년 <그늘(蔭)>, <가을(秋)>, 《제1회 전조선사진전람회》 입선. (『경성일보』, 1934. 10. 19. 석간 2면)

《하기지상전》(『아사히신문(朝日新聞)』 주최) 1점 당선. (진동선, 2003, 26쪽)

오월회 창립회원.

1936년 <간조(干潮)>, <솔바람(松風)>, <맑은 가을 날씨(秋晴)>, <초가을(初秋)>, 《제3회 조선사진살롱》 입선. (『경성일보』, 1936. 10. 31. 석간 2면)

1937년 <대동강 연광정(練光亭)>, 《제1회 남량풍경사진현상모집》 가작. (『조선일보』, 1937. 7. 10)

<욕녀(浴女)>, 《제1회 남량풍경사진현상모집》 가작. (『조선일보』, 1937. 7. 10)

1952년 대한사진예술연구회 고문, 한국사진작가협회 고문 역임. (한미사진미술관 편, 『한국 근대사진의 선각자들』, 서울: 한미문화예술재단, 2004, 119쪽)

1973년 별세.

서형섭(徐亨燮)

회령사우회

1942년 《제9회 조선사진전람회》 1점 입선. (『경성일보』, 1942. 11. 19. 조각 3면)

선죽현(善竹賢)

1943년 《제10회 조선사진전람회》 4점 입선. (『경성일보』, 1943. 11. 19. 조각 3면)

안정차(安正次)

경일사우회





1936년 <신호(シグナル)>, 《제3회 조선사진살롱》입선. (『경성일보』, 1936. 10. 31. 석간 2면)

오병도(吳炳道)

진남포카메라구락부

오리엔탈사진학교 졸업. (한국사진작가협회 편, 2013, 80쪽)

1936년 《상업미술사진전》(전조선사진연맹 주최) 제4석 입선. (최인진, 2000, 485쪽)
 <해바라기(日廻り)>, 《제3회 조선사진살롱》입선. (『경성일보』, 1936. 10. 31. 석간 2면)

1938년 <남자의 옆얼굴(男のプロフィール)>, 《제5회 조선사진살롱》입선. (『경성일보』, 1938. 11. 8. 조간 7면)
 《개인사진전람회》(중국 안동현 공회당) (한국사진작가협회 편, 2013, 80쪽)

1939년 <무제>, 《제3회 남량사진현상모집》가작. (『조선일보』 1939. 7. 18)

이겸수(李謙洙)

1937년 경성아마추어사진구락부 창립회원. (최인진, 2000, 261쪽)
 1939년 <여름 아이(夏の子供)>, 《제6회 조선사진살롱》입선. (『경성일보』, 1939. 11. 14. 조간 3면)
 <여름 풍경(風景)>, 《제3회 남량사진현상모집》3등 3석. (『조선일보』 1939. 7. 22)

1940년 《제7회 조선사진전람회》1점 입선. (『경성일보』, 1940. 11. 19. 조간 3면)

이경래(李景來)

사립 회령 보음여자고등보통학교 교사 (정도선, 『회령에서 남긴 사진 (1936~1943): 정도선 사진집』, 서울: 눈빛, 2003, 148쪽)
 회령사우회

1943년 《제10회 조선사진전람회》5점 입선. (『경성일보』, 1943. 11. 19. 조간 3면)

이규완(李揆完)

백양사우회 (임응식, 1999, 60쪽)

1937년 경성아마추어사진구락부 창립회원. (최인진, 2000, 261쪽)
 <빛과 그림자(光と影)>, 《제4회 조선사진살롱》입선. (『경성일보』, 1937. 11. 17. 석간 4면)

1945년 조선사진연구회 창립회원. (한국사진작가협회 편, 2013, 64쪽)

1949년 대한사진예술연구회 회장. (한국사진작가협회 편, 2013, 364쪽)

이덕기(李惠器)

백양사우회

1942년 《제9회 조선사진전람회》1점 입선. (『경성일보』, 1942. 11. 19. 조간 3면)

이태경(李泰敬)

1934년 <정물(靜物)>, <K군 상(K君の像)>, <마을(村)>, 《제1회 전조선사진전람회》입선. (『경성일보』, 1934. 10. 19. 석간 2면)
 1935년 <K씨 상(K氏像)>, 《제2회 조선사진살롱》특선 1석, <정물(靜物)>, 《제2회 조선사진살롱》입선. (『경성일보』, 1935. 10. 30. 조간 7면)

이형록(李亨祿, 1917~)

강릉사우회

1917년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출생. (이형록 저, 신수진 편, 『이형록 사진집』, 서울: 눈빛, 2009, 173쪽)

1938년 <어항(漁港)의 황혼(黃昏)>, 《제2회 남량풍경사진현상모집》가작. (『조선일보』, 1938. 6. 30)





〈전원(田園)〉, 《제5회 조선사진살롱》 입선. (『경성일보』, 1938. 11. 8. 조간 7면)

1939년 〈수확(收穫)〉, 《제6회 조선사진살롱》 입선. (『경성일보』, 1939. 11. 14. 조간 3면)

1940년 《제7회 조선사진전람회》 2점 입선. (『경성일보』, 1940. 11. 19 조간 3면)

1953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신학대학 졸업. (이형록, 2009, 173쪽)

1957년 신선회 창립, 지도고문. (〃)

1958년 〈강변〉, 《제1회 국제사진공모전》(미국 US카메라 주최) 입선. (〃)

1960년 살롱아루스 조직 및 대표 역임. (〃)
현대사진연구회 조직 및 지도고문. (〃)

1961년 《제1회 살롱아루스 사진전》 참여. (예술의 전당 편, 1994, 24쪽)

1962년 스웨덴 『POTO』지 초대작가. (이형록, 2009, 173쪽)

1967년 『월간 포토그래피(현 월간사진)』 주간. (〃)
『사진예술』 평론위원. (〃)

1971~1978년 국전 사진부 초대작가, 심사위원 역임. (〃)

1974년 《제1회 국제사진교류전》 참여. (한국사진작가협회 편, 2013, 153쪽)

1978년 《동아사진콘테스트》, 《동아국제사진살롱》, 《동아미술제》 심사위원. (이형록, 2009, 173쪽)
《대한민국사진전람회》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 (〃)

1979~1982년 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 고문 역임. (〃)
《제물포사진대전》 심사위원. (〃)
뉴-서울사진동호회 조직 및 지도고문. (〃)
신상회 조직 및 고문. (〃)

1984년 현대문화상 본상 수상. (〃)

1989년 대한민국문화예술대상 수상. (〃)

2002년 한국사진작가협회 공로상. (〃)

2004년 《가까운 옛날: 사진으로 기록한 민중생활》(국립중앙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순회 전시) 3인전. (〃)

2005년 한미사진미술관 초대작품전. (〃)

2008년 동강사진박물관 특별기획전 작품집 발간 및 영구 소장. (〃)

《소박한 사람들의 삶의 현장》(원주시립박물관) 외 강원도 6개 도시 순회 전시. (〃)

2009년 갤러리 제비꽃 개관기념전, 《이형록 사진전》(갤러리 제비꽃) (〃)
『이형록 사진집』 발간. (〃)

임순태(林順泰)

목포사진구락부

1936년 〈수로의 갯바람(濤の潮風)〉, 《제3회 조선사진살롱》 입선. (『경성일보』, 1936. 10. 31. 석간 2면)

1937년 〈노(鷺)〉, 〈해변 풍경(海邊風景)〉, 《제1회 남량사진현상모집》 3등, 〈나동(裸童)〉, 《제1회 남량사진현상모집》 가작. (『조선일보』, 1937. 7. 10)

임응식(林應植, 1912-2001)

1926년 부민공립보통학교(富民公立普通學校) 졸업. (국립현대미술관·사진아카이브연구소 편, 『임응식: 기록의 예술, 예술의 기록』, 국립현대미술관, 2011, 380~381쪽)

일본 와세다중학교 입학. (〃)

1931년 부산체신리원양성소 6개월 과정 수료. (〃)

1932년~1935년 부산여광사진구락부 가입·활동. (최인진, 2000, 479쪽)

1934년 일본 도시마체신학교 졸업.

〈초자의 정물(ガラスの靜物)〉, 『寫眞살롱』(일본 현광사[玄光社] 발행) 입선. (최인진, 2000, 480쪽)

1935년 강릉사우회 조직, 회장 역임. (국립현대미술관·사진아카이브연구소 편, 2011, 380~381쪽)

1937년 강릉사우회 제1회 작품전(강릉상사회사(江陵商社會社) 대회의실) 개최. (임응식, 1999, 54쪽)

〈독을 가다(堤を行く)〉, 《제4회 조선사진살롱》 입선. (『경성일보』, 1937. 11. 17. 석간 4면)

〈어부(漁夫)〉, 《조선사정해외선전사진전》 입선. (최인진,





- 2000, 483쪽
- 1938년 <엄마와 아이(母と子)>, 《제5회 조선사진살롱》입선. (『경성일보』, 1938. 11. 8. 조간 7면)
- 1944~1946년 도쿄 일본물리탐광주식회사 근무, 과학사진 담당. (국립현대미술관·사진아카이브연구소 편, 2011, 380~381쪽)
- 1946년 박기동·이병상 등과 부산광화회 조직. 회지 『아르스 사진뉴스』 발간. (〃)
- 1946~1952년 부산 대교로에서 사진재료상이자 사진현상소인 아르스 경영. (〃)
- 1949년 《제1회 예술사진동인전》(대원화랑) (예술의 전당 편, 1994, 23쪽)
- 1947~1952년 부산광화회를 부산예술사진연구회로 개칭, 회장 역임. (국립현대미술관·사진아카이브연구소 편, 2011, 380~381쪽)
- 1950년 인천상륙작전에 보도사진관원으로 종군. (〃)
《경인전선보도사진전》(부산 USIS 화랑, 광복동 거리) (〃)
- 1952~1961년 한국사진작가협회 조직. 부회장 역임. (〃)
〈병아리〉, 《제1회 도쿄국제사진살롱》입선. (〃)
- 1953~1974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출강. (〃)
- 1953~1961년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 중앙위원 역임. (〃)
- 1954~1963년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사진전공 전담. (〃)
- 1955년 〈나무〉, 미국 『Photography Annual 55』에 수록. (〃)
- 1955~1961년 한국미술가협회(대표 장발) 사진부 부대표 역임. (〃)
- 1956년 《한국가족사진전》(주한미국공보원과 한국사진작가협회 공동주최, 서울 USIS화랑) 기획, 편성. (〃)
- 1957년 《인간가족전》(경북공미술관) 국내 유치. (〃)
- 1957~1969년 서울특별시 문화위원 역임. (〃)
- 1958년 문교부 대학내부시설 책정위원 역임. (〃)
한국사진문화상(한국사진작가협회) 수상. (〃)
- 1960년 〈입모〉, 『세계사진연감』(일본 평범사(平凡社)) 수록. (〃)
서울특별시문화상 미술상 수상. (〃)
- 1961~1967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강사 출강. (〃)
- 1964~1965년 서울여자대학 강사 출강. (〃)
- 1964~1966년 덕성여자대학, 건국대학 강사 출강. (〃)
- 1964~1971년 월간 『공간』 주간 역임. (〃)
- 1970년 《EXPO '70》(오사카, 일본) 한국관 내부 전시 사진 제작 담당. (〃)
- 『공간』 창간 4주년 기념 《한중일 합동 주제 사진전: 현대와 전통》 기획, 개최. (〃)
- 1971년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수상. (〃)
- 1972년 《새마을 사진전》(국립공보관) 참여. (예술의 전당 편, 1994, 25쪽)
《임응식 회고전》(서울, 부산) 개최. (국립현대미술관·사진아카이브연구소 편, 2011, 380~381쪽)
- 1972~1978년 숙명여자대학교 미술대학 강사 출강. (〃)
- 1972~2000년 동아일보사 사진동우회 명예회원. (〃)
- 1973년 사단법인 한국사진협회 이사장 취임. 문공부 국전 개선연구회 위원. (〃)
한국문화사절단원으로서 일본문화계 시찰. (〃)
- 1973~1978년 서라벌예술초급대학 사진과 과장 역임. (〃)
- 1974~1978년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사진과 과장 역임(정년퇴직). (〃)
- 1974~1975년 국전 운영위원 역임. (〃)
- 1974~2000년 한국사진작가협회 고문 역임. (〃)
- 1977~1986년 한국사진교육연구회 창립, 대표 역임. (〃)
- 1977~1986년 중앙대학교 객원교수 출강. (〃)
- 1978년 일본 UNESCO 주최 국제사진공모 작품 심사 차 도일. (〃)
현대사진문화상 수상. (〃)
- 1978~2000년 《동아미술제》(동아일보사) 고문. (〃)
- 1982년 《임응식 회고전》(국립현대미술관) 개최. (〃)
- 1983년 로스앤젤레스 한국공보관 초대전(미국). (〃)
- 1987년 한국사진교육학회 고문 역임. (〃)
- 1989년 《사진술 발명 150주년 기념 주불 파리 한국문화원 초대전》(파리, 프랑스) (〃)
대한민국 은관문화훈장 수상. (〃)
- 1995년 《임응식 회고전》(삼성포토갤러리) 개최. (〃)
- 1996년 가장 문학적인 상(한국문인협회회장) 수상. (〃)
- 1998년 《'98 사진영상의 해》조직위원회 위원장 역임. (〃)
- 1999년 한국사진문화재단 명예위원장 역임. (〃)
- 2001년 별세.





장병진(張炳眞)

대구아마추어사우회 (임응식, 1999, 57쪽)
 경북사진문화연맹 (임응식, 1999, 72쪽)

- 1937년 <가을(秋)>, 《제4회 조선사진살롱》 가작. (『경성일보』, 1937. 11. 17. 석간 4면)
- 1938년 <가을 하늘(秋の空)>, <가을 빛(秋の光)>, 《제5회 조선사진살롱》 입선. (『경성일보』, 1938. 11. 8. 조간 7면)
- 1939년 <가을 전원(秋の田園)>, <여름 구름(夏の雲)>, <귀로(歸路)>, 《제6회 조선사진살롱》 입선. (『경성일보』, 1939. 11. 14. 조간 3면)
 <초하(初夏)>, 《제3회 남량사진현상모집》 가작. (『조선일보』, 1939. 7. 18)
- 1949년 《산업사진전》(경북도 산공방[産工房] 주최) 입상. (임응식, 1999, 73쪽)

장석현(張錫顯)

- 1939년 <정군의 인상(丁君的印象)> 외 1점, 《제6회 조선사진살롱》 입선. (『경성일보』, 1939. 11. 14. 조간 3면)
- 1940년 《제7회 조선사진전람회》 1점 입선. (『경성일보』, 1940. 11. 19. 조간 3면)

장인봉(張仁奉)

함흥사진구락부

- 1936년 <결실(みのり)>, <가을(秋)>, 《제3회 조선사진살롱》 입선. (『경성일보』, 1936. 10. 31. 석간 2면)

정도선(鄭道善, 1917~2002)

1917년 평양 황금정에서 출생. (정도선, 2003, 159쪽)

- 1936년 회령 사립 농업보습학교 졸업. (〃)
- 1937년 회령사우회 창립, 초대 회장. (〃)
 향토사진예술연구회 창설. (〃)
 『경성일보』 청진 지국 《경마사진공모전》 입상. (〃)
 《회령사진동인전》 <생활> 외 15점 발표. (〃)
 회령사우회 발표전 <수목> 외 7점 발표. (〃)
- 1939년 <총후의 건아>, 《함북 아마추어 사진전》 1등. (〃)
 《해양사진공모전》 1등. (〃)
- 1939년~1941년 일본사진보국회 주최 사진공모전에서 특선 12회, 추천 5회 입상. (〃)
- 1940년 <새벽으로 향해서>, 《제4회 남량풍경사진현상모집》 우수작. (『조광』, 1940년 10월호)
- 1941년 일본사진문화연맹 전국 72지부(조선, 대만, 만주 포함) 연도 최고 득점상 및 십걸상 일본사진문화연맹 연도표창(欄木豊賞). (정도선, 2003, 159쪽)
 <소년 항공사(少年航空士)>, 《제8회 조선사진전람회》 특선 제2석, <가을 아침(秋の朝)>, <소년의 동경(少年の憧れ)>, <아침 해(朝陽)>, <미래의 보라매(未來の荒鷲)>, <황혼(黃昏)>, 《제8회 조선사진전람회》 입선. (『경성일보』, 1941. 11. 17. 조간 3면)
- 1942년 《농촌 신년 사진 현상공모전》 특선 2석. (최인진, 2000, 486쪽)
 <산록의 아침(山麓の朝)>, 《제9회 조선사진전람회》 추천 제2석 외 7점 입선. (『경성일보』, 1942. 11. 19. 조간 3면)
 동경사진연구회 회원. (정도선, 2003, 159쪽)
 일본사진보국회 제11회 작가에 추천. (〃)
- 1943년 《제10회 조선사진전람회》 1점 무감사 입선 외 2점 입선. (『경성일보』, 1943. 11. 19. 조간 3면)
 <해양의 증산>, 《제3회 海의 사진전》 특선 1석. (최인진, 2000, 486쪽)
- 1945년 황해도 재령에서 서울로 이주. (정도선, 2003, 159쪽)
- 1946년 <태극기>, 《해방기념사진전》 특선 병 선정. (한국사진작가협회 편, 2013, 97쪽)
- 1951~1953년 『중앙일보』 사진부장. (정도선, 2003, 159쪽)
- 1951년 한국사진회 대표 최고위원. (〃)
- 1954년 『한신사진뉴스』 편집국장. (〃)





1963~1977년 《동아사진콘테스트》 심사. (〃)
 1966~1980년 《동아국제사진살롱》 심사. (3회 위원장) (〃)
 1969년 한국예술문화훈리위원 및 한국예총 이사. (〃)
 1972년 《새마을 사진전》(국립공보관) 참여. (예술의 전당 편, 1994, 25쪽)
 1973년 한국사진협회 부이사장. (정도선, 2003, 159쪽)
 1973~1976년 중앙대 사진학과 강사. (〃)
 1973~1978년 신구전문대 사진과 강사. (〃)
 1974~1976년 수도여사대 응미과 강사. (〃)
 1975년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추천작가. (〃)
 1976~1978년 《영상의 적(跡) 전국사진공모전》 심사위원장. (〃)
 1978년 《동아미술대전》 운영위원. (〃)
 1980년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초대작가 및 심사. (〃)
 1981년 《경기도미술전람회》 초대작가. (〃)
 한국사진작가협회 고문. (〃)
 1983년 『정도선 수필집』 발간. (〃)
 2002년 별세.

정병현(鄭炳鉉)
 경성조선사우회

1936년 〈활짝 갠 날(良く晴れた日)〉, 《제3회 조선사진살롱》 입선. (『경성일보』, 1936. 10. 31. 석간 2면)

정부송(鄭富松)

1939년 〈햇살(日ざし)〉, 《제6회 조선사진살롱》 입선. (『경성일보』, 1939. 11. 14. 조간 3면)

정용복(丁龍福)

1942년 《제9회 조선사진전람회》 3점 입선. (『경성일보』, 1942. 11. 19. 조간 3면)

정운상(鄭雲相)

대구아마추어사우회 (임응식, 1999, 57쪽)
 경북사진문화연맹 (임응식, 1999, 72쪽)

1937년 〈귀로(歸路)〉, 《제4회 조선사진살롱》 가작. (『경성일보』, 1937. 11. 17. 석간 4면)

조상규(趙祥奎)

대구아마추어사우회 (임응식, 1999, 57쪽)

1940년 《제7회 조선사진전람회》 1점 입선. (『경성일보』, 1940. 11. 19. 조간 3면)

1951년 《사진동인전》(부산 대도회다방(大都會茶房)) 참여. (임응식, 1999, 106쪽)

1952년 《합동예술사진전》 참여. (〃)

조영일(趙永一)

1938년 〈남자(男)〉, 《제5회 조선사진살롱》 입선. (『경성일보』, 1938. 11. 8. 조간 7면)

차도순(車道舜)

1939년 〈여름(夏)〉, 《제6회 조선사진살롱》 입선. (『경성일보』, 1939. 11. 14. 조간 3면)

1940년 《제7회 조선사진전람회》 1점 입선. (『경성일보』, 1940. 11. 19. 조간 3면)

최계복(崔季福, 1909~2002)

경북사진문화연맹 (임응식, 1999, 72쪽)

1909년 경북 출생. (사진역사연구소 편, 『영선못의 봄: 최계복 사진





- 집], 서울: 문사철, 2009, 163~165쪽)
- 1925년 대구 교남학교(현 대륜학교) 수학. (〃)
일본 교토 영남사진기점 입사, 사진 공부. (〃)
- 1933년 귀국하여 대구 종로1가에 '최계복사진기점' 운영. (〃)
- 1934년 대구 아마추어사우회 결성. (〃)
- 1936년 대구사진공모전 대구부윤(大邱府尹) 컵 <춘풍> 입선. (〃)
<봄을 이야기하다>, 《봄을 그리다 공모전》 가작 당선. (〃)
<집으로 돌아가는 길>, 후지필름 주최 현상모집 5등 입선. (〃)
<안압지의 새싹>, 《대구 부근 하이킹 코스 선정 기념 사진전》 준특선. (〃)
<양화미(洋靴美)>, 대구 달서양화점 주최 현상사진공모전 입선. (〃)
<안개 낀 도선장>, 대구 가을 촬영회 준특선 1석. (〃)
<널뛰기(飛板)>, 추기 조선색현상사진공모 가작. (〃)
<씨름대회(脚戲)>, 조선색 현상사진모집 가작. (〃)
<즐거운 공휴일>, 대구 오리엔탈 현상사진공모전. (〃)
- 1937년 <사두>, 오사카 『아사히신문』 춘기 사진대회 준특선. (〃)
《조선사정선전사진 현상공모전》에서 <해녀의 행진> 3등 입상, 제8부 <교내 작업>, 제9부 <동정을 구하며>, 제10부 <분항사>, 입선. (〃)
<봄의 여성>, 전관서사진연맹 조선 지부 주최 공모전 입선. (〃)
<초하>, 일본 후지필름 주최 조선, 만주, 구주, 중국 대항 사진공모전 입상. (〃)
《상공광고사진공모전》(부산일보사 주최) 입선 4석. (〃)
<모래언덕(砂丘)>, 《예술사진전》(아사히신문사 주최) 특선 1석. (〃)
<한가(閑暇)한 어부(漁父)>, 《제1회 남량풍경사진현상모집》 3등. (『조선일보』, 1937. 7. 10)
<강안(江岸) 풍경>, 《제1회 남량풍경사진현상모집》 가작. (『조선일보』, 1937. 7. 10)
<벧사공을 기다리다(船頭を待つ)>, <말린 물고기(乾魚)>, 《제4회 조선사진살롱》 가작. (『경성일보』, 1937. 11. 17. 석간 4면)
- 1938년 <신사의 아침(神苑の朝)>, 조선민보사 주최 칠택 준특선 2석. (사진역사연구소 편, 2009, 163~165쪽)
- <산정의 아침>, 《대구 하이킹 코스 선정 기념 현상 사진공모전》 특선2석. (〃)
<나루터에서(渡船場にて)>, <늦가을의 농가(晩秋の農家)>, <늦가을 아침(晩秋の朝)>, 《제5회 조선사진살롱》 입선. (『경성일보』, 1938. 11. 8. 조간 7면)
<여름 교외(郊外)>, 《제2회 남량풍경사진현상모집》 1등. (『조선일보』, 1938. 6. 30)
<해녀(海女)>, 《제2회 남량풍경사진현상모집》 가작. (『조선일보』, 1938. 6. 30)
- 1939년 <경주 침성대(慶州 瞻星臺)>, 《명승고적사진현상모집》(전조선사진연맹 후원) 1등 입상. (사진역사연구소 편, 2009, 163~165쪽)
<여름구상(여름丘上)>, 《제3회 남량풍경사진현상모집》 1등. (『조선일보』, 1939. 7. 18)
<여름 바다는 부른다>, 《제3회 남량풍경사진현상모집》 가작. (『조선일보』, 1939. 7. 18)
<저녁 식사(夕餉)>, 《제6회 조선사진살롱》 입선. (『경성일보』, 1939. 11. 14 조간 3면)
<대합실>, 일본 『사진신보』지 월례 콘테스트 입선. (사진역사연구소 편, 2009, 163~165쪽)
- 1940년 <향토의 자랑>, 《제4회 남량풍경사진현상모집》 우수작. (『조광』, 1940년 10월호)
<채빙대>, 일본 『사진신보』지 월례 콘테스트 입선. (사진역사연구소 편, 2009, 163~165쪽)
<고적의 향기>, 오사카 아사히신문사 주최 사진전 준특선. (〃)
<빛나는 조선박람회>, 전조선사진연맹 주최 사진공모전 특선1석. (〃)
- 1941년 <저물어가는 마을>, 조선여행사 주최 1등 입상. (〃)
- 1942년 조선산악회 백두산 등정, 사진 기록 대원으로 참가. (〃)
- 1945년 경북사진문화연맹 조직, 위원장. (〃)
- 1946년 조선산악회 대구지부 결성, 지부장에 피선. (〃)
대구사우회 결성. (〃)
- 1947년 경북사진문화연맹 회장 역임. (한국사진작가협회 편, 2013, 95쪽)
- 1949년 《제1회 예술사진동인전》(대원회랑) (예술의 전당 편, 1994, 23쪽)





1950년 5인전 개최. (사진역사연구소 편, 2009, 163~165쪽)
 1952년 한국사진예술학원 설립, 원장으로 활약. (〃)
 1954년 대구사우회 고문 역임. (〃)
 동방사진문화사 주최 건국예술사진현상모집 심사위원. (〃)
 1957년 한국사진작가단 창립 초대 단장. (〃)
 1961년~1970년 한국사진협회 고문. (예술의 전당 편, 1994, 24쪽)
 1962년 미국 이주. (사진역사연구소 편, 2009, 163~165쪽.)
 1965년, 1968년, 1970년, 《최계복 사진 전람회》(미국 시카고 Public Library) 개최. (〃)
 2002년 별세.

최봉도(崔鳳禱)

1942년 《제9회 조선사진전람회》3점 입선. (『경성일보』, 1942. 11. 19. 조간 3면)

최봉희(崔鳳禧)

회령사우회

1934년 경성사진사협회 이사. (최인진, 2000, 480쪽)
 1940년 〈하운(夏雲)〉, 《제2회 바다의 사진전》 특선 2석. (최인진, 2000, 485쪽)
 1941년 〈僕의飛行兵〉, 《항공사진 공모전》 특선. (최인진, 2000, 486쪽)
 1942년 일본사진문화연맹 주최 월례 최고득점상 2부 수상. (〃)
 1943년 《제10회 조선사진전람회》3점 입선. (『경성일보』, 1943. 11. 19. 조간 3면)

최선동(崔先童)

인천광영회

1939년 〈아침 해(朝陽)〉, 《제6회 조선사진살롱》 특선 제4석. (『경성일보』, 1939. 11. 14. 조간 3면)

현일영(玄一榮, 1903~1975)

1921년 매동상업학교 졸업. 개인전(미쓰코시 화랑) 개최. (박주석, 「현일영의 사진과 사상」, 『현일영·서순삼·박필호 탄생 100년 기념 학술대회』, 2003, 17쪽)
 1924년 YMCA 영어과 중등부 중퇴, 개인전(미쓰코시 화랑) 개최. (〃)
 서울 종로1가 천연사진관(天然寫眞館)에 입문. (최인진, 2000, 473쪽)
 1926년 만주 안동현(安東縣)의 안동사진관(安東寫眞館)에 기사로 취업. (최인진, 2000, 474쪽)
 1929년 만주 대련(大連)의 토전사진관(土田寫眞館)으로 전직, 대련인물사진연구회(大連人物寫眞硏究會)를 일본인과 같이 창립. (최인진, 2000, 475쪽)
 《국제 상업예술사진모집》(아사히신문사 주최) 2등. (『한국 사진역사전』 전시도록, 1998, 311쪽)
 1931년 《전만주사진콘테스트》, 《국제광고사진전》(아사히신문사 주최) 각각 준특선. (최인진, 2000, 478쪽)
 대련 영업사진가협회진 특선. (박주석, 2003, 17쪽)
 《제1회 개인전람회》(만주 대련) 개최. (최인진, 2000, 478쪽)
 1932년 경성인상사진연구회 창립 제1회 회원전. (대련상회 사진 재료점 2층) (〃)
 종로 2가 우미관(優美館)에서 '현일영사진관' 개업, 운영. (최인진, 2000, 479쪽)
 YMCA 사진과 강사로 출강. (〃)
 1933년 《제2회 개인전람회》(평양, 전시 작품 20점) (〃)
 1934년 오월회 창립.
 〈살아 있는 동안(生きて居る間)〉, 《제1회 전조선사진전람회》 입선. (『경성일보』, 1934. 10. 19. 석간 2면)
 1935~1936년 일본 오리엔탈사진학교 수학 후 귀국. (최인진, 2000, 482쪽)
 1937년 〈봄의 스케치〉, 《조선의 봄 현상사진 공모전》 특선 제4석. (최인진, 2000, 483쪽)
 경성아마추어사진구락부 창립회원. (최인진, 2000, 261쪽)
 1938년 《전관서연맹전》 특선. (박주석, 2003, 17쪽)
 1939년 《제3회 남량풍경사진현상모집》 심사원. (『조선일보』, 1939. 7. 18)





- 1943년 개인전(미쓰코시 화랑) 개최. (박주석, 2013, 18쪽)
- 1944년 개인전(미쓰코시 화랑) 개최. (〃)
- 1946년 서울인상사진연구회 발족, 회장 역임.
《해방기념사진전》심사위원. (한국사진작가협회 편, 2013, 97쪽)
- 1949년 한국신문사진가협회 간사. (예술의 전당 편, 1994, 23쪽)
《제1회 예술사진동인전》(대원화랑) (〃)
- 1952년 한국사진작가협회 조직, 회장 역임.
《촛불을 꺼라: 한국사진작가협회 제1회 창립전》
- 1956년 제3회 개인전람회(동화백화점 화랑) 개최. (박평중, 2007, 202쪽)
- 1961년 제4회 개인전, 《현일영 사진소품전》(중앙공보관) 개최. (〃)
대한영업사진사협회 고문. (박주석, 2003, 18쪽)
- 1962년 제5회 개인전(중앙공보관) 개최. (박평중, 2007, 202쪽)
- 1963년 6월 제6회 개인전, 11월 제7회 개인전(중앙공보관) 개최. (〃)
- 1964년 제8회 개인전 《현일영 회갑 기념 사진전》(중앙공보관) 개최. (〃)
서울특별시 관광과 주최 《관광사진전》 심사. (박주석, 2003, 18쪽)
- 1965년 《제1회 수정사진문화상》 수상. (예술의 전당 편, 1994, 24쪽)
- 1967년 금혼 기념 개인전(중앙공보관) 개최. (박주석, 2003, 18쪽)
- 1970년 개인전(국립공보관 화랑) 개최. (〃)
- 1972년 제11회 개인전, 《부운 현일영 개인전》(한국화랑) 개최.
(박평중, 2007, 202쪽)
- 1975년 별세.

홍종오(洪鍾五)

- 1937년 〈무제(無題)〉, 《제4회 조선사진살롱》 가작. (『경성일보』, 1937. 11. 17. 석간 4면)





한국사진사 연표: 1929~1945

년 도	전시 · 공모전
1929	3월 정해장, 《예술사진 개인 전람회》 개최 (광화문 빌딩 2층, 3.29~31) 5월 《조선박람회 예술사진 모집》 개최 (5.29) 6월 경북 상주사우회, 《상주소인사진비판회(素人寫眞批判會)》 개최 9월 조선총독부, 《예술사진공모전》 개최 (조선박람회 미술공예교육관) 10월 大澤商會 경성 지점, 《예술사진전람회》 개최 (三中井吳服店 상층, 10.8~9)
1930	2월 『동아일보』, 《사진 모집》 개최
1931	2월 동아일보사, 《예술사진 지상모집》 공고 5월 조선사진회, 《제1회 전람회》 개최. (三越吳服店, 5/9~12, 17점) 9월 정해장, 《제2회 예술사진 개인전람회》 개최 (서울 낙랑다방, 40점) 10월 서순삼의 삼정사진관(三正寫眞館), 조선일보사 평양 지국 후원으로 《제1회 예술사진전람회》 개최 (조선일보사 평양 지국 상층, 10.23~25 ; 경성사진협회, 진남포옥 사진관의 특별출품) ★ 현일영, 만주 대련에서 제1회 개인전 개최
1932	7월 조선사진회, 《제3회 사진전람회》 개최 (丁子屋백화점 갤러리, 7.6~) ★ 경성인상사진연구회, 大澤商會 2층에서 《제1회 회원전》 개최
1933	4월 조선중앙일보사, 《전조선의 명승고적풍속 사진현상모집》 공고 (4.3) 8~9월 조선중앙일보 주최 《전조선현상사진모집》 9월 경성일보사·매일신보사, 《현상사진전람회》 개최 (三越吳服店 갤러리, 9.1~3; 모집 공고 7.7) 평양 사진관연합, 《제1회 사진전람회》 개최 (평양부 신창리 東明書館 4층, 9.12~25) 11월 조선사진회, 《제3회 사진전람회》 개최 (三中井 화랑, 11.24~26) 12월 경성제국대학 직원 중심 《아마추어사진전》 개최 (법문학부 회의실) ★ 10월 현일영 평양에서 전람회 개최
1934	7월 전조선사진연맹, 조선해국보국단, 《제3회 해의 사진》 개최 (7.10) 10월 전조선사진연맹, 창립 기념 《제1회 전조선사진전람회》 개최 (三越 갤러리, 10.20~24) 11월 조선사진회, 《제4회 사진전람회》 개최 (三中井 화랑, 11.9)
1935	8월 전조선사진연맹, 《여름사진전》 개최 (三越 갤러리, 8.7~11) 11월 전조선사진연맹, 《제2회 조선사진살롱》 개최 (三越 갤러리, 11.1~5) ★ 울산사진연구회 창립회원전
1936	5월 조선사진회, 《제5회 사진전람회》 개최 (三中井 화랑) 8월 《조선사정선전사진 대전람회》 개최 (三越, 三中井, 大澤, 8.6~11) 조선중앙일보사, 《제1회 사진현상모집》 공고 (8.27)(10.10 지상 발표) 9월 온양 온천 신정관(神井館) 주최 《예술사진전람회》 개최 (신정관 내) 11월 전조선사진연맹, 《제3회 조선사진살롱》 개최 (三越 갤러리, 11.1~5) 12월 운보 김기창, 《착색사진전람회》 개최 (大澤商會 3층 홀, 12.6~8) ★ 《전관서사진연맹 조선지부 창립기념 인화모집》
1937	5월 전조선사진연맹, 《사진 백년 기념 카메라 축제 촬영회 사진전람회》 개최 (三中井, 5.15~17) 강릉사우회, 《제1회 사진전람회》 개최 (5.13~), 심사원 渡邊康弘, 林應植, 李尙祿, 深井石良) 6월 조선일보사, 《제1회 남량사진현상모집》 개최 11월 전조선사진연맹, 《제4회 조선사진살롱》 개최 (三越 갤러리, 11.19~23)





참고자료: 신문 기사 자료 (『매일신보』, 『경성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조선중앙일보』); 최인진, 『한국사진사: 1631~1945』(눈빛, 2000); 이경민, 『카메라 당과 예술사진 시대』(아카이브북스, 2010); 한국사진작가협회 편, 『한국사진 50년사』(사)한국사진작가협회 출판부, 2013); 임응식, 『내가 걸어온 한국 사진: 임응식 회고록』(눈빛, 1999); 정도선, 『회령에서 남긴 사진 1936~1943: 정도선 사진집』(눈빛, 2003); 강만길 외, 『한국사 26』(한길사, 1994)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지 못 한 경우 ★로 표시했다.

단체	교육 · 행사 · 사건 · 출판	한국사
	2월 경성사진사협회, 부속으로 사진강습원 설치 3월 동광사진학원(東光寫眞學院) 창설. (경성 낙원동, 4월 5일 개학) 7월 경성사진사협회, 제1회 사진강습회 개최 (7.22~27, 강사 신낙균, 박만달)	1.14 원산부두의 文坪석유공장 직공 및 운수노동자 1400명,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총파업 (4.6 원산대파업) 10.1 조선박람회 개최 11.3 광주학생운동 일어난 (1930년 3월까지) 12.23 신간회 간부 44명, 근우회 간부 47명 검거됨 (民衆大會事件)
	2월 대전 남성사진관(南星寫眞館) 주(主) 진두성 (陳斗星), 남성사진학원 설립 ★ 국제사진학원 설립	1월 三越백화점 경성지점, 충무로 1가에 준공 3.1 이동녕, 김구 등 韓國獨立黨 창립
3월 평양사진동업자 조합 결성 (3.13) 신의주조선인사진사협회(新義州朝鮮人寫眞師協會) 결성 (창립대회 國境寫眞館, 3.25; 회장 高漢淑, 부회장 張炳珍) 7월 삼방번영회 주도로 사진사조합 창립 ★ 조선사진회 결성		5.15 신간회, 전국대회를 열고 해소를 결의 6.17 총독 齊藤實 사직, 宇垣一成, 총독이 됨 (7.14 부임) 6월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원 70여 명, 종로서에 검거 (제1차 카프사건) 7.2 만보산 사건 발생 11. 경성대생이 중심이 된 반제동맹사건으로 학생 다수 검거 됨
★ 경성인상사진연구회 결성		1.8 한인애국단원 이봉창, 동경 櫻田門 밖에서 일황 裕仁에게 수류탄을 투척했으나 실패 4.29 한인애국단원 윤봉길, 상해 虹口공원에서 열린 상해사변 승리 축하식장에 폭탄을 던짐
3.15 남조선사진협회 결성 (3.15 대전 남성사진관에서 발기총회) ★ 외금강사진사동업조합 결성	6월 김규진 사망. (6.28) 12월 경성사진학강습원 설립 (12월 학무국 인가, (이듬해 1월 개강 고시, 원장: 신락균申樂均))	11.15 중국 洛陽軍官學校에 한인특별반 설치 (책임자 이청진)
5월 평양 오월회 창립(서순삼, 현일영, 문석오, 김영선) 8월 전조선사진연맹 결성 ★ 조선사진재료상 연맹 결성 ★ 대구아마추어사우회 조직 (회장 최계복, 회원 정운상, 조상규, 장병진 등)		4.11 조선농지령 공포 5월 제2차 카프 사건(일명 新建設 사건)
10월 강릉사우회 결성 ★ 울산사진연구회 결성 ★ 함흥사진구락부 결성		7.5 한국독립당 · 조선혁명당 · 의열단 · 신한민족당 · 대한독립당 · 민족혁명당으로 통합
6월 영등포사진사동기회 조직 (창립대회: 玉仙堂사진관 6.5; 강남사진관, 진영사진관, 영일사진관, 민옥사진관, 명화사진관, 옥선당사진관) ★ 전관서사진연맹 조선지부 설치		1.25 총독부, 학무국 내에 사상계 설치 2월 金殷鎬, 許百鍊 등, 조선미술원 창립 8.5 南次郎, 조선 총독에 취임 (8.26 부임) 8.27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동아일보』 무기 정간
★ 경성아마추어사진구락부 결성 ★ 경성사진동호회(京城寫眞同好會) 결성 (화신백화점 사진재료부를 주축으로) ★ 회령사우회 결성	4월 전조선사진연맹, 《사진 백년 기념 카메라 축제 촬영회》 개최 (창경원, 4.18)	6.2 『동아일보』 복간됨 7.7 중일전쟁 발발 8.1 우익진영인 한국독립당 · 조선혁명당 · 한국국민당 · 대한독립당 · 동지회 · 국민회 · 부인애국단과 연합하여 韓國光復陳線 조직, 좌익진영은 朝鮮民族





년 도	전시 · 공모전
1937	
1938	4월 오병도, 《개인사진전람회》 개최 (안동현 공회당) 경성아마추어사진구락부, 《제1회 아마추어 작품 사진 전람회》 개최 (大澤商會 3층 홀) 6월 조선일보사, 《제2회 남량사진현상모집》 개최 (과제: 여름풍경) 10월 경성아마추어사진구락부, 《제2회 아마추어 작품 사진 전람회》 개최 (大澤商會 3층 홀, 10/14~17, 41점) 11월 경성사진동호회, 《1회 작품전람회》 개최 (和信백화점 갤러리, 11.1~5) 전조선사진연맹, 《제5회 조선사진살롱》 개최 (三越 갤러리, 11.10~14)
1939	4월 경성사진동호회 정몽석(鄭夢石), 《취미사진 작품전(趣味寫真作品展)》 개최 (和信 갤러리, 4.1~7) 5월 경성아마추어사진구락부, 《제3회 사진전람회》 개최 (大澤商會 3층 홀, 5/26~28) 7월 정해창, 《사진인화개인전》 개최 (和信백화점 갤러리, 7.8~12) 조선일보사, 《제3회 남량사진현상모집》 주최 (과제: 구름과 물) 조우식(趙宇植), 주현(周現), 2인전 《회화 사진 전람회》 개최 (경성제국대학 갤러리, 7.20~23) 9월 전관서사진연맹(全關西寫真聯盟) 조선 지부, 《하이킹 촬영 콘콜》, 《성지 사진 순례 전》 개최 (三中井 갤러리, 9.12~17) 11월 경성아마추어사진구락부, 《제4회 인화전람회》 개최 (三中井 6층 화랑, 11.14~16) 경성부, 《신경성풍경사진전람회》 개최 (大澤商會) 전조선사진연맹, 《제6회 조선사진살롱》 개최 (三越 갤러리, 11.15~19)
1940	1월 경성아마추어사진구락부, 경성백양사우회, 《합동인화전》 개최 (和信 7층 갤러리, 1.24~28, 60점) 2월 조선총독부 문서과, 《조선사정선전사진모집》 공고 4월 국민정신총동원연맹, 《정동연맹사진현상모집》 공고 6월 신문사진반연맹, 《신문사진전》 개최 (丁子屋 4층 홀, 6.25~일주일간) 7월 경성아마추어사진구락부, 《제5회 사진인화전》 개최 (三中井 6층 화랑, 7.5~7) 조선일보사, 《제4회 남량사진현상모집》 개최 (『조선일보』 폐간으로 8월 『조광』으로 인계되어 10월에 발표) 11월 경성백양사우회 창립1주년 기념 《제1회 인화전람회》 개최 (和信 갤러리, 11.13~17) 전조선사진연맹, 《제7회 조선사진전람회》 개최 (三越 갤러리, 11.20~24)
1941	2월 광협구락부, 《제1회 인화전람회》 개최 (和信백화점 갤러리) 7월 이태웅(李泰雄), 《사진감상회》 개최 (丁子屋 백화점 갤러리, 7.17~21) 9월 전조선사진연맹, 제3회 항공일 기념 《항공사진전》 개최 (三越 갤러리, 9.16~22) 11월 경성백양사우회, 《제2회 사진전람회》 개최 (和信 갤러리, 11.25~30) 전조선사진연맹, 《제8회 조선사진전람회》 개최 (三越 갤러리, 11.19~23)
1942	7월 경성사진방첩연맹, 《제1회 방첩사진전람회》 개최 (三越 갤러리) 8월 조선총독부 정보과, 《조선사정소개 사진전람회》 개최 (일본 각 도시 순회) 유재원, 《제1회 사진동인전》 개최 (함흥 공회당) 11월 전조선사진연맹, 《제9회 조선사진전람회》 개최 (三越 갤러리, 11.20~25) 12월 매일신보사, 《대동아전쟁방첩사진전람회》 개최 (丁子屋백화점 갤러리)
1943	3월 국민총력조선연맹, 《대동아전쟁사진전람회》 개최 (平田백화점) 4월 군인원호회 조선본부 · 국민총력조선연맹, 《군인원호사진전람회》 개최 (丁子屋 백화점 갤러리) 7월 경성사진방첩연맹, 《제2회 방첩사진전람회》 개최 (三越 갤러리) 11월 전조선사진연맹, 《제10회 조선사진전람회》 개최 (三越 갤러리, 11.20~26)
1944	
1945	





단체	교육 · 행사 · 사건 · 출판	한국사
		戰線 형성 10.10 조선의용대 조직 12.23 일황의 사진을 각급 학교에 배부, 경배하게 함
	9월 경성사진동호회 촬영대회 (우이동 방갈로촌, 9.18)	7.1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창립
★ 경성백양사우회 결성		7.17 김구계의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와 김원봉계의 조선민족건선연맹, 통합하여 全國聯合陳線協會 창립 9월 경성 丁子屋 준공
9월 (경성)사진업조합 결성 (체신회관, 9.18) 12월 경성사진방첩연맹 결성 (체신회관, 12.20 ; 200여 명의 영업사진가 참여)	3월 토목학회 조선지부, 《항공사진강습회》 개최 (만주항공주식회사사사진처 片岡健次郎 강연)	2.11 창씨개명 실시 8.10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강제 폐간 당함. 9.1 경성일보사, 조선박람회 개최 10.16 國民總力聯盟 조직, 황국신민화 운동 강제로 행함
3월 인천방첩사진연맹(仁川防諜寫眞聯盟) 결성 4월 원산사진구락부 해소, 원산사진연맹 결성 (4.11) 5월 경성아마추어사진방첩연맹 결성 (5.8) 부산사진문화방첩연맹 결성 (5.21) 6월 여주사진방첩연맹 결성 9월 회령사진방첩연맹 결성 (9.17)		3.15 총독부, 學徒挺身隊를 조직(근로동원 실시) 12.9 임정, 대일선전포고
6월 조선사진협회(朝鮮寫眞協會) 결성 (6.23, 회장: 堀內博司) 7월 나남사진방첩연맹 결성		1.4 조선군사령 포고 7월 김두봉(金斗奉) 등, 연안에서 朝鮮獨立同盟 조직 10.1 조선어학회 사건
		3.1 총독부, 한국에 징병제 공포. (8.1 시행)
6월 조선사진감광재료통제조합 결성 9월 조선보도사진보국회 결성 ★ 백양사우회 해산		9월 여운형, 지하비밀단체 建國同盟 조직
		8.12 소련군, 청진에 상륙. 8.15 일본 항복, 제2차 세계대전 종결, 광복. 8월 조선건국준비위원회(건준) 발족(위원장 여운형, 부위원장 안재홍)





한국사진사 참고자료:

전조선사진연맹 · 《조선사진전람회》 관련 참고 문헌 목록

일제강점기 사진 관련

학위 논문

이경민, 『한국 근대 사진사 연구: 사진제도의 형성과 전개』, 박사: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2011.

유지현, 『1930년대 한국 예술사진 연구』, 석사: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2000.

허재우, 『한국근대사진사에 있어서 예술사진 운동에 대한 연구: 1920년대~1940년대의 사진활동을 중심으로』, 석사: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사진학과, 2000.

단행본

박평중, 『한국사진의 선구자들』, 서울: 눈빛, 2007.

오광수 선생 고회 기념 논총 간행위원회, 『한국 현대미술 새로 보기』, 서울: 미진사, 2007.

육명심, 최인진, 『한국현대미술사: 사진편』,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1978.

이경민, 『구보씨 사진 구경 가다, 1883~1945: 근대 사진 관련 신문 기사 색인집』, 서울: 아카이브북스, 2010.

————, 『카메라당과 예술사진 시대』, 서울: 아카이브북스, 2010.

이형록 저, 신수진 편, 『이형록 사진집』, 서울: 눈빛, 2009.

임영균, 『사진가와의 대화3: 한국사진을 개척한 원로 사진가 8인과의 대담』, 서울: 눈빛, 1998.

임응식, 『내가 걸어온 한국 사진: 임응식 회고록』, 서울: 눈빛, 1999.

정도선, 『회령에서 남긴 사진 1936~1943: 정도선 사진집』, 서울: 눈빛, 2003.

정도선, 『정도선 수필집』, 월간사진출판사, 1983.

최인진, 『한국사진사: 1631~1945』, 서울: 눈빛, 2000.

사진역사연구소 편, 『영선뫼의 봄: 최계복 사진집』, 서울: 문사철, 2009.

국립현대미술관 · 사진아카이브연구소 편, 『임응식: 기록의 예술 예술의 기록』,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2011.

한국사진작가협회 편, 『한국사협 50년사』, 서울: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출판부, 2013.

기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편, 『구술로 만나는 한국 예술사-사진가 이명동 구술채록』, 2003.

————, 『구술로 만나는 한국예술사-사진가 이형록 구술채록』, 2003.

박주석, 이경민 외, 『현일영 · 서순삼 · 박필호 탄생 100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2003.

전조선사진연맹 관련

연감

경성일보사 · 매일신보사 편, 『朝鮮年鑑』, 경성일보사, 매일신보사, 1935년.

경성일보사 · 매일신보사 편, 『(昭和12年) 朝鮮年鑑』, 경성일보사, 매일신보사, 1936년.

경성일보사 · 매일신보사 편, 『(昭和13年) 朝鮮年鑑』, 경성일보사, 매일신보사, 1937년.

일간지 기사

「入選寫眞展覽會 新義州で開催」, 『京城日報』, 1935. 11. 2.

「躍進朝鮮を宣揚する 大懸賞寫眞の募集」, 『京城日報』, 1936. 7. 21.

「朝鮮事情宣傳하는 寫眞을懸賞募集」, 『每日申報』, 1936. 7. 22.

「寫眞百年記念カメラ祭 撮影會-寫眞展覽會 來る十五日より三日間」, 『京城日報』, 1937. 5. 14.

「皇軍慰問 카메라맨 總動員으로 銃後報國風景撮影: 本社主催朝鮮寫眞聯盟後援 懸賞으로 募集한다」, 『每日申報』, 1937. 8. 20.

「いづれも逸品 - 全鮮寫眞聯盟 主催 特選 外八點 決定」, 『京城日報』, 1939. 7. 6.

「朝鮮實情紹介寫眞 内地에 提供」, 『每日申報』, 1943. 7. 16.

「바다의 科學展」 三百貨店에서 開催中」, 『每日申報』, 1943. 7. 21.





『경성일보』 관련

학술지 논문

김대환, 「사이토(齋藤實) 총독의 문화정치와 『경성일보(京城日報)』」, 『論文集』, 경주대학교, Vol.17, 2004.

김영희, 「일제 지배시기 한국인의 신문접촉 경향」, 『韓國 言論學報』, 한국언론학회, Vol.46 No.1, 2001.

정진석, 「제2의 조선총독부 경성일보 연구」, 『관훈저널』, 관훈클럽, 통권 83호, 2002년 여름호, 2002.

정진석, 「第2の朝鮮總督府 京城日報」, 『京城日報』 영인판 제1권, 한국고회사문헌연구원, 2003.

단행본

임경석 외 편, 『동아시아 언론매체 사진』, 서울: 논형, 2010.

정진석, 『언론조선총독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한국사진문화연구소는 한국 근현대사진사와 관련된 사진 및 자료를 기증받고 있습니다. 기증된 자료는 사진문헌의 부재와 자료의 소실로 적박한 환경에 처한 한국사진사연구에 귀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